

묵언-시간엄수-소임충실 미리 다짐



박태원 교수의

불교로 보는 인생

행복하게도 나는 내 길을 진정 즐기며 걷고 있다. 비록 학문 역량이나 노력은 부끄럽기 그지없으나, 좋아서 걷고 나아갈수록 유익하니 실로 과분한 복이다. 인생의 초점, 삶의 지도리, 내 모든 노력이 허망하지 않게 생산적으로 수렴되는 삶의 테마를 나는 선명하게 지니고 있는 셈이다. 내 삶의 테마를 형성시켜준 모든 인연들이 그래서 너무도 고맙다.

월하의 길, 그것도 불교 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길에 서리라는 생각은 대학 입학 때까지의 내 인생 계획에 흔적도 없었다. 어릴 적 중국으로 건너가 기연(綺緣) 끝에 황실(皇室)로부터 한의학학을 사사 받고 젊은 나이에 중국 황실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친척 어른(의할거니의 오라버니)의 머리 속에 담긴 내용들이 고교 시절 나에게 신비 그 자체였다. 참선에 뜻을 두었을 때에는 다리가 썩어 들어갈 정도로 몰두하셨던 분, 한 번도 한의학 서적이나 불경을 펴지 않으셨던 필 요할 때면 모든 이들을 술술 풀어

'아, 이제 진정한 나의 길을 만나는구나. 내 인생이 지금부터는 확 바뀌겠구나'

그 직감은 맞았다. 안정된 경제 능력과 직격되지 않는 직업 형태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내가, 경제 행위로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길에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안정 지향적이던 평소의 내 태도와는 전혀 결 맞지 않은 행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그 낯선 길로 성큼 성큼 내달았다. 하면 할수록 재미나고 신 나게 몰두할 수 있는 길, 내 자질이 나게 상황, 노력이 최고의 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길, 마치 블랙홀마냥 나를 흡인해 가는 이 새로운 삶의 테마에 솔직하고도 과감하게 몸을 맡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길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했을 뿐인데, 예상대로 먹고사는 일이며 사회 관계가 그 길 위에서 풀려나갔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정 좋아서 몰두하며 즐길 수 있는 삶의 테마와 조우하는 기회는 누



참불자의 길

여름 수련회 앞두고

여름 수련회가 휴가의 새로운 풍속도로 정착되면서 수적 증가는 물론 동참하는 계층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수련회 프로그램도 전통적인 수행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련회에 참석했던 경험자들은 대부분 '행생 잊지 못할 체험'이라고 말한다. 반면 준비나 이해 부족으로 수련회에서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세상 시름을 잊으려고 찾아온 초심자들의 경우 이 같은 사례는 더 많다는 것이 사찰측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수련회는 보통 3박4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새로운 발심과 깨달음의 장이다. 불교 이해와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리의 씨앗을 심는 수행의 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보다 효율적인 수련회를 위해 마음가짐과 규칙, 주요 프로그램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수련회를 개최하는 사찰측은 "수

련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련회를 개최하는 사찰마다의 특성이나 일정을 잘 살펴서 자신의 수행력이나 발원에 맞는 수련회에 참여해야 하고, 수련생들에게 산문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을 놓아 버릴 줄 아는 마음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도의 길에서는 '나'라고 집착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독선과 이기심 그리고 편견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나 지식 등은 오히려 수행의 장애가 된다는 얘기도. 또한 일상의 습관도 버리는 것이 좋다.

수련회는 산사에서 수행하는 스님들과 똑같은 일정으로 예불과 참선 정진하는 만큼 지켜야 할 청규가 있다. 그 대표적인 규칙이 묵언, 시간엄수, 소임 충실이다. 정당한 규칙은 절제와 자율의 힘을 길러 줄 뿐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물론 수련회에 참석하면 이러한 규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일러주

지만 미리 알아두면 짧은 기간동안 보다 충실한 수행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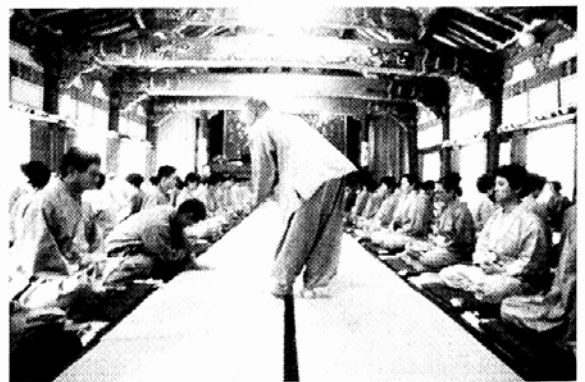
대원사 현장 스님은 "현대인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남의 말을 잘 귀담아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수련회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얻

근기별 프로그램 선택
대중생활 예절 지키자

기 위해서는 묵언과 차수하는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련회에서는 대부분 발우공양을 하는데 이 때 밥 한 톨,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는 절제와 소욕지족을 배우고 이공양이 내게 오기까지의 공덕에 감사하고 음식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수행의 한 방편이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수행할 때의 예절도 배울 수 있다. 대중 생활에 다소 예의가 어긋난 사람이



수련회의 철저한 준비는 보람된 수행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 사진은 송광사 여름수련회 모습.

있어도 이를 나무라지 말고 그 나쁜 것을 감추어 주고 좋은 점을 나타내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중과 이야기할 때에 속세의 이야기보다는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을 보았으면 그 사람의 머리 앞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부터 수련 생활 규칙 및 시간계획, 프로그램, 강의 내용 등 수련회 운영에 관한 교재와 불교 상식, 사찰 소개, 사찰 예절 등 의식에 필요한 부분을 담

은 수련교재를 제작 배포한다고 한다. 이런 교재를 읽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도 보다 뜻 깊은 수련회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수련회 정보센터(02-7300-108)나 해당 사찰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철저한 마음가짐과 준비로 수련회에 참석한다면 여름 한철의 추위를 고치지 않고 일상에 지친 삶을 되돌아 보고 재충전하여 더 나은 삶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김종근 기자 jganga@buddhapa.com

행복하게 하는 인연

내시던 그 천재성에 흠뻑 반하여, 나를 살려준 그분의 신비를 풀이하려 마음먹어 본 적이 있었다.

법조인을 꿈꾸기도 했다. 물론 화려해 보이는 법복의 권위와 사회적 대우가 이끌림의 더 큰 원인이었지만, 어떤 때는 소아과 의사가 제일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의대 진학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법대생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인생은 그런 대로 예상대로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대학 2학년, 내 삶의 실로 엉뚱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불행처럼 찾아온 불문(佛門)의 인연은 그 때까지의 그림자처럼 인생 청사진을 단번에 날려버렸다. 그 인연의 핵심 고리가 되어 주었던 어느 수좌와의 하룻밤 대화, 심오한 도리라는 인식 정도로 내 삶의 주변을 돌던 불교 언어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파닥거리며 삶의 근저로 파고들었다. 웬만해서는 잠을 거르는 적이 없던 내가 이틀인가 사흘인가를 밤잠을 새우다. 흥분일까 긴장일까, 그 어떤 고조된 분위기가 잠겨져 쫓아버렸다. 그 때 뚜렷한 근거는 없었지만 선명한 직감이 나를 휘감았다.

몰두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의 테마와 조우 누구에게나 기회온다

구에게나 온다. 필요한 것은 그 때 망설이지 않고 내면의 요구에 과감하게 응하는 일, 시대 유행이나 상식, 관행의 무게에 짓눌려 주춤거리다 보면, 행운은 스쳐 지나간다. 진정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기 삶의 진정한 테마는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탐구하라. 그리고는 이모저모 재지 말고 옹기 있게 그 길 위에 서라. 그러면 존재가 중요워지고 일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풀린다.

순수학문과 기초학문의 토대가 붕괴되는 공황이 들리고 있다. 시장의 이름으로 근사한 상품 가치만을 외치는 시대 정신, 그 상품 진열대에 전시된 몇몇 인기 품목 주위에만 몰려드는 젊은 인재들의 모습은 이 시대의 빈천한 자화상이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lsan.ac.kr



"이 일에는 인정(人情)이 없어서 전해줄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아야만 비로소 재미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판단한다면, 영원히 실 날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 24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날마다 일어나 사용하는 곳은 모자람 없이 원만하여 석가나 달마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가 철저히 보지 못하고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이 소리와 색의 경계 속으로 도망가 도리어 그 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므로 더욱더 어긋나게 됩니다."

법(法)·진리는 '무엇'으로 정해지지도 않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라는 조건으로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이들과 한정은 모두 사람의 인식(認識)·감각이나 감정이나 의식 등 소위 오온·십팔계의 경험세계이

만드는 것이다. 법은 정식의 바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식을 넘어서 있다. 정식은 분별상(分別相)을 갖추고 있으나 법에는 분별상이 없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부처와 중생도 없고, 돈오와 점수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고, 나와 남도 없고, 진리와 거짓도 없고, 깨달음과 미혹도 없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사람의 정식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능 스님은 "법에는 돈집(頓集)이 없으나 사람에게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법에는 어떤 분별상도 없으나, 한편 모든 분별상의 실상(實相)은 분별상이 아닌 법이다. 즉 법은 무상(無常)하게 생멸하는 분별상의 진실한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잘 살펴보면, 정식(情識) 위에 나타나는 분별상은 늘 생멸(生滅)의 연속적 과정에 있을 뿐, '무엇'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것

'서장' 통한 선 공부 ① 허사리에 대한 답서(1)

실상 알고보면 분별상이 바로 법



김태완 부산대 강사·철학

이 있다. 다만 명칭과 이미지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끊임 없는 변화의 흐름으로 고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실상을 알고 보면 분별상이 바로 법이다.

그러므로 실상을 알고 보면, 정식의 분별상으로도 법을 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실상을 모르고 분별상에만 잡혀 있는 사람에게서 아무 도움이 전하여도 분별상으로 받아들이니, 법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실상을 모르는 사람은 올바른 견해와 틀린 견해, 바른 가르침과 그른 가르침을 파악해내는 안목이 없다. 모두가 동일한 분별상에서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성인의 말씀도 아무 감흥을 주지 못한

다.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별상의 실상을 깨달은 뒤에야 비로소 분별상의 참된 재미를 알게 된다. 그 재미는 바로 법의 맛이다.

요컨대 공부하는 모든 분별상 속에서 어떤 분별상도 없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성인의 말씀이나 스승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분별상에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공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요묘하고 잘 들어맞는 논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시원하고 기분 좋은 느낌이라 하더라도, 어떤 포근한 안락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도덕적인 만족감을 주는 행위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고행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앞서 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

식(情識) 위에서의 분별상을 벗어 나지 못하는 한 그런 것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오직 한 순간에 문득 실상을 깨닫는 것만이 공부에 진전을 가져온다. 모든 분별상의 실상을 깨닫고 보면 분별상 그대로가 바로 법이고, 흐름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노력은 전혀 필요치 않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생활하면서 매 순간 순간 문득 문득 분별심을 떠나고 정식을 떠나서 세계를 바라보라. 세계는 한 순간의 머 무름도 없이 허무하게 흘러가지만, 흐름 그 자체는 한결같이 살아 있음을 볼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삼라만상으로 물결치며 변해가는 세계의 변화 없는 바탕을 파악하도록 하라. '그것'은 어떤 '무엇'도 아니며 '누구'도 아니다. '그것'은 그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으나, 그 무엇보다도 명명 백백한 것이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용 제사용)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제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가집, 영안실)

☛ 의식용 목적향도 있습니다 ☛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절을 높이고 향의 풍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박석

박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 계피, 인삼 등 30종의 한약재료를 만들었습니다. 향기박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 ~ 2kg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베개, 방석

베개의 내용물 약재는 30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팔공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에" 국화베개, 박하베개, 매밀베개, 질병치료를 베개(두통, 중풍 등) 석씨향방의 베개는 향기롭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의 사전을 베개를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편안한 베개 또는 높고 낮게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 ~ 4kg

※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국민은행 076-21-0658-363
농협 100016-52-018512 예금주: 김남서

☎ 02) 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2001년 대원불교대학 하계수련회

귀의 삼보하옵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체험하기 위한 대원불교대학 2001년도 하계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일 시: 2001년 7월 6일(금) 16:00 - 8 (일) 15:00 (2박 3일)
2. 장 소: 대원불교대학 (서울 용산구 후암동)
3. 문의: 02-773-9171
4. 참석대상: 일반 재가 불자님
5. 교수진: 헤게스님(본대학 학장), 최봉수(동국대), 장위옥(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일운스님(무형문화재 범패전수자)
6. 참가금: 40,000원 (교재비 및 면티 포함)
7. 준비물: 필기구, 세면도구, 운동화, 간편한 복장 및 침구, 목탁, 요령

2001년 하계수련회 시간표

일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일(금)													등록 및 입실준비	입교 식	저녁 공양	양회강상 "달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묵언의 시간 "정취속 교수"						
7일(토)	기상 세면	아침 예불 108 참회	아침 공양	특강 헤게스님 (120분)	특강 인도불교사 최봉수 교수 (120분)	점심 공양	의식실수 (삼보동칭) 김범준 박사	특강 유식학 김시업 교수	저녁 공양	특강 불교문화 김범준 박사	불교의식실수 (시식) 일운 스님											취침	
8일(일)	기상 세면	아침 예불 108 참회	아침 공양	특강 불교경전의 개설 허경구 교수	일요정기 법회	점심 공양	평가 및 회향																

◎ 大圓佛敎大學 학장 헤게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 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 756-7258